

보도해명자료
(’19. 1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 목 :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, 예타
사업의 조속한 재신청과 신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중
(전자신문 1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정부는 에너지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, 보완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과 신규 인력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
- 1월 17일 전자신문 <에너지산업 인력양성 ‘20년 명맥’ 끊기나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에너지분야 석·박사급 인력양성 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단 될 위기
-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불투명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는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,
 - 신규 기획한 “미래에너지산업 창의·융합 인재육성” 사업의 내실 있는 보완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중

- 아울러,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공동연구·프로젝트를 수행하는 “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인재육성” 사업도 금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예정임
- 향후에도 정부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심진수 과 장(044-203-5160)
송상현 사무관(044-203-5162)